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 1,000원  
 인연있는 불자들의 화주 시주 강력 바랍니다.  
 주지 석해현 합장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월야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 현대불교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남글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성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매인·남글당

동국대 불교병원의 문은 언제 열릴 것인가?  
 불투명한 개원 일정으로 인한 동국대 불교병원에 대한 걱정이 종단 안팎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개원 예정에서 금년 봄, 금년 가을로 일정이 지연되던데 급기야 내년 봄도 확실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병원 개원시기에 대한 답변이다.



동국대 불교병원 개원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해 설치한 일부 시설들이 포장도 뜯지 못한채 의료진과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동국대병원 개원 여전히 '안개속'

### 16일 종립학교 관리위 '운영실태확인소위' 구성

종단 의지 부족·정치적 등 악재 극복돼야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 이하 종관위) 회의 역시 불투명한 개원 일정을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회의에서 원택 스님은 "지금 상황에서 개원 시기를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학교의 재정을 조사해 본 뒤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밝혔다. 동국대학 이사장 영배 스님도 "충분한 검토 없이 과잉투자 한 것이 문제"라 지적하고 "개원은 해야겠지만 교육환경 악화, 기존병원 투자문제 등이 겹치고 있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동국대 운영실태 확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9월 초순경에 활동 결과를 밝히기로 했다. 동국대 불교병원의 개원이 '부지하 세일'로 늦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지적됐다. 첫 번째는 종단과 학교 구성원들의 개원에 대한 의지결여. 이는 종단의 정치적 역학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문제로, 지난해 이사장 자리를 놓고 물밑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힘겨루기'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녹원 전 이사장의 퇴진과 정대 스님의 이

사장 취임, 신임 총장 체제의 출범 등이 지나치게 종단 정치 구도에 얽혀 있었던 것과 관련한 후유증이 병원의 개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한 중진의원스님은 "학교 행정과 재단의 운영, 종단 정치의 흐름 등이 긴밀하게 얽혀 있어 본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개원했다. 종단의 주요 소인자인 또 다른 스님도 "개원보다 급한 일은 없는데 다른 문제(가)에 더 관심을 가져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라 진단하기도 했다. 화합된 의지만 있으면 개원의 수순은 이미 정답처럼 나와 있는 것이라는 것이 종단 안팎의 중론임을 확인하는 말들이다.

또 개원을 위한 자금의 부족이라는 현실문제도 크게 부각된다. 지금 시점에 '학교운영실태 확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당초 불교병원이 '빈손'으로 시작됐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돈타령'은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재단의 정관개정 등 행정 절차가 묶여 있는 것도 이유로 등장 하지만 성원미달로 인해 이사회가 유회되는 등의 현실은 '과연 의지는 있는가?'라는 의구심만 싹고 있다. 불교계는 오는 18일 191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등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새만금' 항의 2명 폭행 당해 입원

세영 스님·국회의원 등 책임자 처벌·공사중단 요구

새만금 방조제 4공구 물막이 공사 마무리 된 가운데 이를 두고 환경운동가들과 새만금추진협의회(대표 김영두, 이하 새추협) 관계자들 간의 몸싸움이 일어나 2명이 실신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9일 4공구 구간이 2m 밖에 남지 않았으며 공사 현장에 소속 회원 20여 명을 급파했다. 현장에서 항의 농성을 하며 공사를 저지하던 환경운동가들은 새추협 관계자들의 물리적 위협으로 10일 철수했다. 그러나 12일 오전 4공구 현장에 재진입한 80여명의 환경운동가들은 삽과 곡괭이를 방조제를 걷어 내다 같은 날 오후 다시 새추협 관

계자들에게 쫓겨났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가 2명이 몸싸움 도중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물막이 졸속 공사와 관련 세영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은 11일 유인태 정무수석과 만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9명도 12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민주시민회 위헌 변호사모임 등 3개 단체도 12일 서울 세실레스토랑에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효력정지 신청'을 제기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갯벌과 전복 경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창환 교수(아주대 예방학과)는 "방조제를 완전히 막지 않고 갯벌이 보존되어야만 항만과 축소된 복합단지들 중심으로 하는 산업 및 물류 전진 기지 건설이 가능하다"며 '해양-생태관광 특구'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필립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는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문화재청 승격 또 미뤄질 듯

정부조직법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당초 6월로 예상됐던 문화재청 승격 여부가 또 한 차례 미뤄질 전망이다. 제2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상정된 주요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나 문화재청 차관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13일 "문화재청뿐 아니라 기상청 승격, 소방청·한의약청 신설 등을 골자한 정부조직법 개정

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조만간 이들 안들을 종합해 정부 통일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들을 한꺼번에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의 통일안이 제출되더라도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상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 이 의원은 그러나 "문화재청 차관 승격의 경우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어 통과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계종 수련정보센터 신행정정보센터로 개편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여름 사찰 수련회와 주말수련회 정보를 제공해 온 '수련정보센터'를 수련회를 비롯해 법회, 봉사활동, 수행 등 신행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로 전달하는 '신행정정보센터(www.ibuddhism.org)'로 확대 개편한다. 18일 문을 여는 신행정정보센터는 단위사찰과 불자, 네티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불자와 네티즌들은 신행정정보센터를 통해 조계종과 사찰의 종합적인 신행정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한층의 맑음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①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0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동해: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53-1196 제주: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지난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출판 주간 태국대사가 함께 오찬을 하며 양국간의 불교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조계종과 태국이 이처럼 공식교류를 추진키로 한 데는 법장스님의 의지도 있었지만, 쏘분 대사의 역할이 컸다. 쏘분 대사는, 태국이 정부 차원에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하도록 한

데 이어 마침내 양국간의 공식교류 물꼬를 텅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류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쏘분 태국대사가 준 교훈**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구산스님과 승산스님이다. 그렇게 개인의 원력에서 출발한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 150여 사찰을 운영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 수는 개신교의 30분의 1, 가톨릭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 수치가 제시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종단 차원의 마인드와 대책 부족"이다. 맞는 말

이다. 지금까지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해외 포교에 뒷집을 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법장스님은 최근 제시한 31대 핵심 정책 과제에서 해외 및 외국인 포교 활성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스님과 불자들 모두 제2의 쏘분 대사, 제2의 승산스님이 되겠다는 자세. 해외포교 활성화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  
 7월 14~17일 실상사서  
 각 지역과 부문·사안별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 환경활동가들이 매년 한차례 모여 환경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제8회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이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 일대에서 열린다.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2박 3일간 '지리산에서 꿈꾸는 생명·평화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리산생명평화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불교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50여개 단체 250여명이 모이는 워크숍에서는 ▲기조강연 ▲심포지엄 ▲집중마당 ▲토론회 ▲체험마당 ▲노고단에서 환경기도 ▲생명평화 민족화해의 물타탕기 ▲지역인들과 환경활동가 함께 하는 문화마당 ▲발우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현안에 대한 공유 및 토론과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초청**  
**도솔암 극락보전 낙성식 및 천일재·백중천도재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그동안 여러 불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도솔암 극락보전 중건불사가 원만 진행되어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모였었던 아미타부처님의 개금불사도 회향하여 점안식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격에 맞게 다시 조성한 아미타부처님 후불탱화의 점안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천년을 지나 오늘에 와서 우리의 힘으로 다시 천년을 이어갈 터전을 마련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큰 가피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뜻깊은 불사 회향을 맞아 도솔암에서는 사부대중 뿐만 아니라 선망부모, 무주 유주 고혼과 함께 회향하고자 총무원장 법장 큰스님을 모시고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지장 기도도량 도솔암에서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천도제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뜻하신 바의 소망이 성취되고 돌아가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함께 성불의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 극락전 낙성식 및 점안식 : 2003년 6월 21일(토) 오전 10시
- 백중기도 입재일시 : 2003년 6월 21일(토) 10시
- 백중기도 동 참 비 : 일곱 오만원정(영가수에 상관없음)
- 천도기도 입재일시 : 2003년 6월 21일(토) 10시
- 천도기도 동 참 비 : 일곱 오십만원 [명축(시덕·친정, 생축)(기도비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 문 의 : 전화 063)561-0075, 564-2861 팩스 063)561-4080
- 접수안내 : 천도재 법회에 동참하시는 분은 6월 19일까지 명축 생축 축원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계좌번호 : 농협 521030-51-002482 예금주: 도솔암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앞 출발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조계사앞 출발
- 문의전화 : 이회장 017-221-8778 진연회 02)820-3242, 4689 부산 박길하 011-579-7226 / 대전 이현호 011-409-2702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운사 지장제일기도도량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